

시

조퇴

강희정

드르륵 교실문 열리는 소리

달달아 붉어진 내 얼굴은 밖으로만
내달리고 싶어

손상님 야가 아침만 되면

아버님 살피주세요 어서하세요

밥상머리에서 빗질을 했산단 말이요

애들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긴 머리카락 짜르라 해도 안 짜르고

일찍 점심 먹고 운동장 나가 놀아라

구신이 밥 달라 한 것도 아니고

나보다 먼저 교실 밖으로 나가버린 선생님

참말로 아침마다 뭘 짓인지 모르것어라

킁킁 입을 가리고 웃어 대는 책상들

달걀 프라이가 들국화처럼 피어 있는

아버지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생일 도시락이

낮술이 뺨질뺨질 빨갱게 웃고 있는

아버지 손을 잡고 산들산들 집으로 걸어간다

4교시 수업 시간

시 당선 소감



당선자 강희정

- ▲전남 화순 출생
-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과 재학중

“시의 길에선 남과 다른 내가 더 나일 수 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았다. 의지가 개입할 겨를이 없이 바깥을 향해 열린 모든 세포를 걸어 잡았다. 물속에 오랫동안 잠겨 있었다.

정지된 시간을 다독여 수면 위로 올라와 녹슨 세포를 깨우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갇혀 있던 감각 촉수가 언어와 결합하며 나를 한 걸음씩 움직이게 했다.

기억처럼 지워졌다가 되살아난 진실이 시어가 되어 꿈을 거린다. 하얀 종이 위에서 먹고 마시고 잠이 든다.

행복과 불행이 서로 겹눈질하면서 달린다. 이 둘에게서 언제나 허둥대지만, 그래도 나는 나아간다. 시와 사랑을 향

해. 세상을 향해...

시의 길에서는 남들과 다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됩니다. 다르니 내가 더 나일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광주일보와 이병률 시인에게 감사드립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이재무, 오봉욱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운전, 이대홍 시인님께 감사드리고 첫눈 시빛기반 회원들, 시를 향해 탄탄한 근육을 보여준 선배 시인들과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작년과 올해 바빠 곁을 떠나신 부모님께 영예를 안겨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 심사평



이병률 시인

- ▲199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등단
- ▲현대시학작품상 등 수상
- ▲'당신은 어딘가로 가려한다' 등 다수

“쟁하고도 명징한 시, 탁한 세상에 차려놓는 기쁨”

시가 반드시 고통을 통과한 형태의 무엇이 아닐 것이다. 번민과 고뇌를 통과한 흔적을 날것의 형태로 그려 놓을 필요는 어디에도 없다. 꼭 그려야 하는 것처럼 누구나 쓸 수 있을 것 같은 사라거나 더군다나 그 누구도 훔칠 수 없는 시라면 신춘문예에 같은 공모에선 감점범으로 접근하게 된다. 장점이 충분한 작품을 두고 고민을 했다.

진영심의 '꾸미지오 미용실'은 제목부터 즐거운 이야기의 향을 풍고 있는 것 같아 여러번 읽게 되었다. 잘려나가는 머리카락을 바늘에 비유했다는 사실에 일단 선자는 놀랐다. 하지만 '바늘'을 연상하고 '바늘'까지 끌어와 작상에 성공했다면 바늘귀에 뭐라도 꿰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진 채

후루룩 시를 맺고 말았다.

결국 강희정의 '조퇴'를 당선작으로 선한다.

새해에 여는 시 한 편으로서의 자격과 미덕을 찾자면 단연 양명함이었다.

동시(童詩)의 마스크를 쓴 시라고 가볍게 평할 수 있겠으나 이 시의 아름다움은 시 속에서 자기 자신이 들어갈 '자리'를 과감할 정도로 배제시키는 능력으로 완성도를 일으켰고 그것은 어떻게든 자신을 과잉하게 드러내려는 수많은 응모작들 속에서 분명한 빛을 발하는 지점이기도 하였다. 멋진 다 이병이었다. 쟁하고도 명징한 시 한 편을 골라 탁한 세상의 공기에 차려놓는 기쁨이 나만의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1월호

예남양



기명 천사 김달봉·MZ세대 '돈쫄' 위드코로나 시대, 新 나눔·기부 문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남양' 신년호는 가슴 따뜻한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로 나눔과 기부 이야기로 독자들을 찾아간다.

1월호 특집은 '위드코로나 시대, 新 나눔·기부 문화가 뜬다'로 시작한다. 어려운 시절,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한 구례 운조루의 '타인능해'(他人能解)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다. '얼굴 없는 천사'와 '기명(記名) 천사 김달봉 씨'의 기부 또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훈훈하게 만든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요즘,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하는 '키다리 아저씨'의 새로운 나눔과 '돈쫄'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MZ세대의 기부 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예향 초대석이 만난 주인공은 '조태일문학상'을 수상한 '지리산 시인' 박남준 선생이다.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다는 것은/ 몸 안에 한그루 푸른 나무를 숨 쉬게 하는 일인데"(《지리산 둘레길》중) 자연과 벗하며 40년 가까이 '울림'을 주는 시를 써 온 박남준 시인이 최근 '조태일문학상'과 '인화 문학예술상'을 수상했다. 지리산 자락 시인의 집 '심원재'(心遠齋)를 찾아 '생명 이야기'와 '나누는 삶'에 대해 들었다.

신년 기획으로 '2022 광주 문화계 전망대'를 준비했다. '문화수도 위상 회복의 해'로 선언한 광주시는 2022년 한 해 문화예술 숙원사업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 비엔날레 전용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아시아 문화자원을 인공지능 첨단기술을 통해 보여주는 현대디지털 미술관 구축, 아시아문화테마 공원 조성 등이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개관 30주년을 맞는 광주시립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이견희 컬렉션 순회전 등 다채로운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새해 희망을 담은 전시회를 둘러보는 것은

로 한해를 시작하는 것도 뜻 깊을 것 같다. 광주 남구 양림동 이이남 스튜디오에서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와 철학자이자 초대 수집가로 잘 알려진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가 함께 준비한 '밝히고 비추는 Shining brightly' 전(2월 13일)이 전시되고 있다.

상무지구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는 칼로 새겨 놓은 담백한 그림과 성찰의 글이 담긴 '이철수 판화전-문인가 하였다니, 다시 길' 전(2월 28일)이 열리고 있다. 장르는 다르지만 힘든 시간을 견뎌온 모두에게 따뜻한 선물 같은 전시장으로 떠나보자.

'클릭, 문화현장'이 찾아간 곳은 '자유와 저항의 시인' 김수영 문학관이다. 서울 도봉구에 자리한 김수영문학관은 '가장 시적인 삶을 살다간' 그의 삶과 예술세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이곳에는 시인의 대표작인 '풀을 비롯해서 생전 글을 쓰던 서재, 유품 원고 등 희귀한 자료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지난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고 있는 김수영문학관을 찾았다.

'남도 오디세이 美謠'은 호랑이의 해, 호랑이가 앞발을 들고 포효하는 형상인 월출산의 고장 영암으로 향한다. 유구한 영암의 역사문화 향기가 배어있는 월출산 자락 기차 밧길과 구립 전통 한옥마을, 영보정, 천년고찰 도갑사를 찾았다. 전통 자연 건조 방식으로 만든 아천대붕꽃감과 영암의 특산품 무화과를 이용해 요거트와 인절미를 개발한 로컬 브랜드도 소개한다.

이외에 '해외문화기행' 예술의 도시 베를린, '한국의 산사를 가다' 불법이 머무르는 곳 법주사, 임인년 비상 꿈꾸는 '호랑이 띠' KIA타이거즈 외야수 박정우 선수와의 이야기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